‘완주 · 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 현판 제막식

상생발전 방안 논의 · 통합 추진 공감대 형성 위한 홍보 활동 등 추진

전주시민들을 대표해 완주군민 대표단과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의 활동 공간이 마련됐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이하 전주시민협의회)는 1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김성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상 위원장과 송병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전주시민협의회 소속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민협의위원회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완주·전주 상생발전 전주시민협의위원회는 12일 전주시자원봉사센터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남관우 전주시의회 의장, 최주만 전주시의회 부의장, 최용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장, 김성규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진상 위원장과 송병용 부위원장을 비롯한 소속 위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날 제막식은 △통합 추진 경과보고 △축사 △시민협의회 운영계획 발표 △기념행사(현판 제막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앞으로 전주시민협의회는 자원봉사센터에 마련된 회의 공간에서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지난 5일 출범한 전주시민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박진상 위원(효사랑전주병원 원장)과 송병용 위원(전주시 새마을회 회장)을 각각 선출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주축으로 △기획·행정 △농업·농촌 △산업·경제 △지역·개발 △복지·환경 △교육·문화 △청년 등 총 7개 분과(51명)로 나눠 활동하게 된다.

분과 위원들은 지난해 10월 완주군민협의회가 전주시에 제안한 107개 사업 등 완주·전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1차 분과별 회의를 거쳤으며 늦어도 오는 3월까지 수용 여부를 전주 시민의 입장에서 검토하게 된다.

또 완주·전주 통합 추진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하며 전주시민과 완주군민 간의 가교역할도 맡게 된다.

박진상 전주시민협의회 위원장은 이날 “30년간 지속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무거운 과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완주지역 통합단체인 완주군민협의회로부터 제안받은 107개 사업 이외에도 도움이 될만한 사업들을 추가 발굴해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목표에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주·완주 시민협의회의 협의 과정은 전주시민의 동의와 완주군민의 신뢰를 쌓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들의 우려 사항과 여러 요구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전주시민협의회와 발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옥기 기자

깨끗한 수돗물 안정적 공급 최선

전주시 상하수도본부, 상 · 하수도 분야 4대 중점 추진 방향 제시

전주시가 올해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목표로 노후 상수관망을 정비하고, 전문적인 수질검사 및 체계적인 하수관리 등에 초점을 맞춘 상하수도 행정을 펼치기로 했다.

전주시 상하수도본부(본부장 김종성)는 12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5년도 상·하수도 분야의 중점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4대 주요 추진 방향은 △맑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 △전문적인 인증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관리 △체계적인 하수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경영 등이다.

먼저 시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노후상수관망을 정비하는 맑은물공급사업 2단계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시는 지난 맑은물 공급사업 1단계 사업을 통해 정비된 지역의 유수율을 87% 정도로 끌어올린 데 이어 지난 2017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총 127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노후된 수도관을 교체하는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현재까지 노후급·배수관 159㎞ 중 121㎞를 교체했으며, 올해는 서신동과 삼천동 일원의 남은 사업 구간 35㎞를 정비하게 된다. 이후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중화산동과 평화동을 비롯한 12개 동에 대한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지난 지난해부터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수도시설 전반에 대해 수도정비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오는 2026년까지 완료해 시민들에게 맑은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적인 인증을 통한 안전한 수돗물 관리로 고품질의 상수도를 공급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시는 노후 배수지 및 취수관의 보수·보강 공사를 통해 시설물의 안전성과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원을 확보하고, 용담호 상수원부터 정수지와 배수지, 각 가정의 수도꼭지수에 이르기까지 과정별 수질검사를 매일·주간·월간·분기별로 나눠 지속 실시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먹을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간다.

특히 시는 전주시민의 67%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수돗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수질검사 후에는 ‘수돗물 수질검사 성적서’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하는 등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음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와 함께 시는 체계적인 하수관리로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쾌적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먼저 시는 갈수록 악화되는 물 공급 여건에 대응해 올해도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물 재이용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중앙(9,10분구) 등 4개 처리구역 17개 분구와 노후하수관로 정비 4개 사업의 하수관로 279.5㎞의 정비를 위해 올해 총 656억 원을 투입하고, 하수처리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시설장비 대수선 및 개량사업을 추진한다.

끝으로 시는 △수도요금 원격검침 시스템 운영 △다량수용가 일제 점검 등 정확한 검침과 요금 부과 △상·하수도 체납요금 징수 강화 △상·하수도요금 이사정산시스템 운영 △수도계량기 동파와 수돗물 누수, 수도시설 고장 등 긴급 수리 안내 등 신속·정확한 상수도 운영체계 구축을 중점 추진해 수요자 중심의 합리적 경영을 도모하고, 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김종성 전주시 상하수도본부장은 “올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와 더불어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먹는 물만큼은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전주를 만들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의회 의원들 5분 발언 잇따라

최지은 의원, 장기안심상가 지원사업 통한 공실 문제 해결
한승우 의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등 주차정책 추진 요구
천서영 의원, 아동 보호구역 지정 적극 추진
김세혁 의원, 개인형 이동 장치 안전 대책 마련 시급

최지은 의원

한승우 의원

천서영 의원

김세혁 의원

12일 전주시의회 제4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4명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한다.

먼저, 최지은(덕진, 팔복, 송천2동) 의원은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등을 통한 빈 상가와 노후 건축물 정비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주지역 곳곳에 빈 상가 등이 방치돼 유령도시를 연상케 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상가 공실 실태를 조사하고 장기안심상가 지원 사업, 금융 및 세제 혜택 개선, 빈 상가 및 노후 건축물 정비사업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상가 공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승우(삼천, 효자1동) 의원은 주차 환경개선 지구 지정 등 실효성 있는 주차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2021년 전주시 주차 수급 실태조사를 비롯한 2024년 주차 환경개선 지구 및 우선순위 지역 용역 결과는 전주시의 주차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지 않은 보여주기식 행정 편의적 정책”이라며 “전주시는 보편적인 원칙과 기준으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에 보탬이 되는 주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서영(비례대표) 의원은 아동 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천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학대 등 각종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아동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하지만 전주시는 전무한 상황”이라며 아동 보호구역의 지정을 적극 촉구했다.

김세혁(비례대표) 의원은 개인형 이동 장치(PM) 안전 대책 마련을 제언했다.

김 의원은 “전동킥보드 이용 증가와 함께 시민의 불편과 우려도 커지고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와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킥보드 없는 거리 지정 및 견인, 대여업체의 면허 확인 및 불법 주정차 킥보드 수거 의무 시행, 업체의 안전모 비치 의무화 및 강력한 단속과 규제 등을 제안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인구문제 인식 개선 릴레이 캠페인 동참

전주시설공단이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공단은 12일 ‘아이는 행복하고! 청년은 희망을 키우며! 노인은 보람있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전주시설공단이 함께 합니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이연상 이사장의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인구문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활동에 참여했다.

인구문제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을 확산하기 위해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이다.

포스터를 활용해 사진을 촬영하고, 대외로 홍보한 뒤 다음 참여자로 2개 기관을 지목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이연상 이사장은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사장 김유화)의 지명으로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주자로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상태)과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영일)을 지목했다.

/김옥기 기자

‘자연아 푸르자’ 팔복예술공장 일대 환경 정화 펼쳐

지난 11일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는 환경보호 캠페인 ‘자연아 푸르자’를 약 2시간 동안 진행했다. 봉사자 50여 명이 전주시 팔복동 팔복예술공장 일대부터 더메이 호텔까지 약 2㎞ 구간 버려진 쓰레기와 배수로에 오래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해 깨끗한 거리를 만들었다.

최중일 지부장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 더욱더 빛과 소금이 되는 봉사활동을 연계해 나갈 것”이라며 “새해에는 좋은 일들이 가득하고 건강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원했다.

/김옥기 기자